

日帝強占期 韓國現代詩人の 越境과 人文學的 意味

박윤우 (西京大教授)

1. 서론

문학사는 역사과정 속에서 전개된 그 사회의 구성주체들의 치열한 삶의 역정과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일종의 집합적 결과물이다. 특히 우리 역사가 근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질곡과 모순을 문학사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에서 검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학사적 노력은 곧 개별문학사로서 민족문학의 특수성을 구성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학사를 바라보는 정당한 시각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을 세우는 일은 곧 문학사교육의 실천적 과제이자 내용요소를 구축하는 기본 전제가 될 수 있다.¹⁾

문학적 가치의 질서로서 문학사를 대할 때 견지해야 할 중요한 시각은 특정한 문학사의 실체가 그 가치의 내용과 형태로서 정신적 산물인 민족공동체의 역사적 삶을 토대로 구성된다는 점이다.²⁾ 일제강점기와 맞물려 전개된 한국현대문학사의 흐름에서 특히 시문학의 현대적 면모를 구축하는 과정은 소설문학이 보여주는 민족적 삶의 현실적 세부의 재현성이라는 특징과 달리, 작품의 창작주체의 끊임없는 탈향과 이향의 궤적에 의한 물리적(역사적·지리적) 실존성이 현실인식의 주도적 계기로 작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의 공간적 월경의 문제가 한국현대시의 민족문학적 특징을 구축하는 정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현대문학사의 전개과정에서 시문학의 위상은 시인들의 활동을 둘러싼 시공간적 궤적이 지닌 정신사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억이 역사를 서사화하고, 서사가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억과 서사는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특히 사건에 위장의 플롯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서사로 완결시켜 다른 서사를 살아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사건의 폭력을 망각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억과 서사는 연쇄하고 있다.³⁾

여기서 문학사 교육이 역사교육에서 다루는 기억의 문제와 다른 자리에 있음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역사의 기억은 과거를 현재와 미래로부터 철저히 분리해내고자 하는 의식의 소산이라면, 문학적 기억은 과거, 현재, 미래의 다리를 놓는, 일종의 개인 및 집단의 특수한 기억의 '터'에 해당한다.⁴⁾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문학사적 시기와 그 시기의 작품(생산)에 대한 고찰은 그들의 기억이 동반하는 특수한 가치와 규범에 의해 창출된 정체성의 실체를 확인하고, 조명하는 일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한국현대시사의 중요한 흐름 중 핵심인 탈향과 유랑,

1)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제4판), 삼지원, 2009, 346, 356면 참조.

2) 박윤우, 「전후 모더니즘 시의 가치 인식과 문학사교육」, 『문학교육학』 3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4, 112면.

3) 오카 마사, 김병구 옮김,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169면 참조.

4)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54~5면 참조.

월경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1920년대를 시작으로, 1930년대와 일제말기에 거쳐 나타난 대표적인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각기 계몽성, 상실감, 저항의식으로 이어지면서 변화한 시정신의 인문학적 의미를 한중일의 근대사적 공간이라는 인문지리학적 관점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朱耀翰, 白石과 李庸岳, 李陸史와 尹東柱가 그 의미를 대변할 수 있는 시인이다.

2. 啓蒙期 주요한(朱耀翰)의 文學活動과 上海

주요한(朱耀翰)은 1910년대의 소위 계몽문학기를 거쳐 1920년대 서구의 상징주의 문학 수용을 계기로 한 초기 근대시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시인이다. 그는 1919년 교토[京都] 유학생 회지인 『학우』에 <에튜드>란 시를 발표하였고, 국내 최초의 근대 동인지인 『창조(創造)』의 동인으로서 <불놀이>와 <눈> 등의 시를 통해 근대시의 선구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주요한은 1900년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를 마친 뒤인 1912년 일본으로 건너가 명치학원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편집인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 시절 그는 송아지라는 필명으로 <조국>, <즐김노래>와 같은 격렬한 민족저항시를 창작하면서 <불놀이> 류와는 전혀 다른 시세계를 보여준다.

상해 시절 주요한의 개인사를 고려할 때, 1920년대 그의 시작 활동은 현실성에 대한 민족적이고도 민중적인 인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의 첫 시집인 『아름다운 새벽』은 이러한 인식의 결과인 바, <나무색이>, <고향생각>, <빛소리>, <샘물이 혼자서> 등의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민족적이고 향토적인 정서는 소박한 개인적이고도 보편적인 내면 정서의 표출을 통해 현대적인 서정시의 특징을 단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 시기 주요한은 한편으로 민중시론을 제창한 바,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에서 그는 민요와 동요의 창작을 통해 민중들의 일상적 생활감정을 반영하고, 한국어의 특수한 미를 구현하는 것을 조선의 현대적 서정시의 목적으로 삼았다. 여기에 나타난 그의 관점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 바, 하나는 민족적 정서의 창조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어의 미학을 구현하는 일이다.

이 초창시대에 있는 우리는 기성한 시대의 세력을 가진 것도 없고 일반 독서 계급의 빠른 감상력을 가짐도 없고, 기성한 시가의 형식도 없이 다만 빈손으로 무슨 새론문학의 창조를 꾀하는 것이외다. 일이 어렵기도 하려니와 그 동시에 흥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시운동의 전도 목표는 무엇인가. 적어도 나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민족적 정조와 사상을 바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 둘째는 조선말의 미와 힘을 새로 찾아내고 지어내는 것입니다.⁵⁾

비록 그가 상해에 머무는 동안 독립운동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민중적 세계관을 민요와 동일시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그의 시론은 한국 근대시의 성립과정에서 특별한 의미와 위상을 가진다. 즉 그의 시작업은 중국의 한시나 시조를 거부하고 오로지 순수한 민족시의 전통적 시형과 문체를 계승하고자 한 결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시학은 현대 서정시의 변혁을 추구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 결과 한국의 현대시는 서구문학의 현대적 흐름 속에서 주제적인 시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5) 주요한, 「노래를 지으려는 이에게」, 『조선문단』, 1934.10.

3. 1930년대 시인들의 탈향과 유랑 이미지 - 백석, 이용악

1931년 중일전쟁을 도화선으로 하여 전개된 만주국의 설치와 일제의 군국주의적 침략 전쟁의 확산은 동북아 정세를 위태롭게 하는 한편, 토지수탈과 노동력 착취를 견디지 못한 우리 민족구성원들로 하여금 터전을 잃고 유이민이 되어 간도나 만주 등으로 떠나가도록 하였다. 1930년대 한국현대시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이 바로 고향의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과 시인들의 존재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백석과 이용악, 오장환 등의 시인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 바, 특히 이들은 시인 스스로 탈향과 월경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 백석

평안북도 정주 출생인 백석(白石:본명-白夔行)은 19세인 1930년 일본 아오야마학원(靑山學院)에 유학했으며, 시인으로서 활동 중에는 주로 조선일보사 기자로 있었으며, 1940년초 만주로 이주, 신경(新京)에 거주하다가 해방 후 신의주를 거쳐 고향으로 돌아오는 행로를 보인다.

그는 본래 시집 『사슴』(1936)을 통해 토속적인 고향의 정서와 인정의 세계를 그린 작품을 써온바, 그 과정에서 ‘남행시초(南行詩抄)’, ‘함주시초(咸州詩抄)’, ‘서행시초(西行詩抄)’ 등의 연작시를 통해 여행의 모티프와 타인의 삶에 대한 관찰과 성찰의 형상을 구현한 바 있다. 백석은 1940년을 기해 중국 신경(新京; 지금의 長春市)으로 주거를 옮기는 데 만주국 군무원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으나, 『滿鮮日報』⁶⁾와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아득한 넷날에 나는 떠났다
夫餘를 肅慎을 渤海를 女眞을 遼를 金을
興安嶺을 陰山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⁷⁾

나는 支那 나라 사람들과 같이 목욕을 한다
무슨 殷이며 商이며 越이며 하는 나라 사람들의 후손들과 같이
한물통 속에 들어 목욕을 한다
서로 나라가 다른 사람인데
다들 쪽 발가벗고 같이 물에 몸을 녹히고 있는 것은
대대로 조상도 서로 모르고 말도 제가꿈 틀리고 먹고 입는 것도 모도 다른데
이렇게 발가들 벗고 한물에 몸을 씻는 것은
생각하면 쓸쓸한 일이다 ⁸⁾

위 작품들은 모두 백석의 타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탈향의 존재로서 사회역사적 삶의 상황이 어떻게 시인의 내적 인식을 구축하도록 하였는지를

6) 만주에는 일찍부터 150~200만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어 일제는 정책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그리하여 이 신문을 통해 언론통제정책을 단행하고, 정치구호로 내세운 만선일여(滿鮮一如)를 달성하고, 5족(五族 : 조선족·중국한족·만주족·몽고족·일본족) 협화(協和)의 도모를 꾀하고자 하였다

7) <北方에서> 부분 (문장, 1940.7)

8) <澡堂에서> 부분 (인문평론, 1941.4)

짐작하도록 해준다. ‘다름’의 존재들 사이에 함께하고 있는 자신을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서 속에 바라보고 있는 시적 주체의 인식은 사실상 이 ‘떠남’의 의미를 이미 ‘아득한 옛날’의 것으로 간주한다. 고향의 충만함에 대조되는 이국(異國)의 공허함은 자아의 거리감으로 시간화되어 나타나며, 이는 곧 상실감으로 귀결된다.

(2) 이용악(李庸岳)

이용악 시인은 1914년 함경북도 경성(鏡城)에서 출생하였으며, 불우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다. 그는 소금 밀매업을 하던 아버지를 어릴 적에 여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으며, 고향으로 경성고보를 졸업한 뒤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조치[上智]대학 신문학과에 입학, 궁핍에 시달리며 유학생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시인의 삶은 곧 당시 우리 민족구성원의 삶의 현장성을 그려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서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전라도 가시내>는 남녘 끝 전라도 여자와 북녘 끝 함경도 남자가 고향을 떠나, 남의 나라 땅이 되어버린 간도의 주막에서 만난 상황을 담아낸 작품이며, 아래 인용한 <낡은 집> 역시 매우 자전적인 요소가 녹아 있는 서사적인 작품이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핏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북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기에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9)

이 시에서 보듯 이용악은 토속적이면서도 섬세한 언어와 밀도 있는 서사적 짜임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식민지인의 고통을 한결 성숙하게 그려낸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조차 반갑지 않은 극도의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모두 떠나고 열매 하나, 꽃 하나 피지 않아 어느덧 휴가가 되어버린 ‘낡은 집’은 일제에 짓밟혀 폐허가 되어버린 당대 민족적 삶의 현실상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

이용악 시의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유랑의 행로가 해방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아래 인용한 작품은 민족 대이동이라 할만한 일종의 ‘귀환의 노래’로서, 해방 이전 삶의 기억과 역사화를 현실 상황의 재현적 관점에서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작품에서 ‘기억 서사’¹⁰⁾는 객관적 관찰자이자 서사의 진술자

9) <낡은 집> 부분. 『낡은집』(同志社, 1938)

인 화자를 통해 구체화됨으로써 해방기 현실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거북네는 만주서 왔단다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을 세월은 흘러 거북이는 만주서 나
고 할배는 만주에 묻히고 세월이 무심찮아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 돌아왔단다

띠팡을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지며 가 가 거 거
배운다더니 조선으로 돌아와도 집도 고향도 없고

거북이는 배추꼬리를 씹으며 달디달구나 배추꼬리를 씹으며 꺼무테테한 아배의 얼굴을 바라
보면서 배추꼬리를 씹으며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

첫눈 이미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턱 움 속에서 이따금
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11)

여기서 시인은 해방 정국이 혼란상이 민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거북이네의 귀환’이라는 서사적 대상을 통해 드러낸다. 이미 ‘낡은 집’의 탈보네로부터 형상된 유이민의 역사성과 현실성은 조국의 이름으로 무작정 귀환해 온 거북이네를 통해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바, 시인은 거북네가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객관적인 타자의 시선으로 묘사함으로써,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귀속 재산의 재분배를 통해 귀환 동포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현실적 상황은 그들에게 또 다른 소외와 배반의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통한 역사의 현재화로 재현해낸다.

4. 일제말기 저항시와 타자의 공간성 - 이육사,윤동주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의 침략전쟁이 가져온 동북아의 극한 정세는 시인들의 개인적, 정치적 결단을 유발한 바, 그 대표적인 시인이 이육사(李陸史)와 윤동주(尹東柱)이다. 흔히 이육사의 시는 강인하고 남성적인 어조와 호방한 대륙적 풍모와 기개를 지닌 것으로, 윤동주의 시는 섬세하고 여성적인 어조와 깊은 자아성찰의 내면성을 지닌 것으로 대비하지만, 정작 이들의 시가 한국 현대시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두 시인의 시세계가 모두 치열한 역사의식을 염결하고도 비판적인 성찰의 언어로 형상화한 때문이다. 일제강점의 말기라는 역사공간이 이들 시의 존재 기반이었으며, 그 공간에서 두 시인은 만주와 북경, 남경, 상해로, 또는 간도 용정촌, 경성, 일본을 거쳐 조국 해방을 눈앞에 둔 채 타향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역사적 위상을 갖는다.

(1) 이육사

조선시대 이래 대표적인 유학의 본향이었던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육사(본명:李源祿)는 엄격한 가문의 분위기 속에서 정명과 대의로서의 전통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내면화

10) 기억이 역사를 서사화하고, 서사가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억과 서사는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특히 사건에 위장의 플롯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서사로 완결시켜 다른 서사를 살아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사건의 폭력을 망각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억과 서사는 연쇄하고 있다. (오카 마라, 김병구 옮김,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169면 참조.)

11) 이용악, 「하늘만 곱구나」(동아일보, 1947.1.7.)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²⁾ 그는 이미 22세인 1925년 국민당 정의부, 대한독립당 군정서, 의열단 등의 독립운동 단체에 관여하던 이정기(李定基)를 주축으로 하여 만형 원기(源基), 동생 원일(源一)과 함께 비밀결사를 조직하였고,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사건으로 검거, 투옥된 후 조선일보 대구지사 기자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1931년 외숙부인 허규(許奎)의 독립국 자금 모금을 위해 만주로 간 그는 만주사변 이후 봉천에 머물며 김두봉(金斗奉)과 교유하였으며, 1932년에는 중국의 문호 노신(魯迅)을 만나기도 하였다. 그가 민족해방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한 것은 김원봉(金源奉)을 중심으로 남경에서 구축된 조선혁명정치간부학교에 입교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때까지 이육사는 이미 [(안동)-大邱-北京-京城-奉天-南京] 등 끊임없는 월경(越境)의 행로를 보인 것이다.

시인의 필명 ‘육사(陸史)’는 이런 의미에서 ‘대륙을 향한 역사적 삶’이라는 정신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그의 다른 작품인 <광야(曠野)>나 <절정(絶頂)>에서 보여주듯이 “천고(千古)의 뒤에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는 외침이나, “한발 재겨 디딜 곳 없는, 하늘도 지쳐 그만 끝난 고원”이자 “서릿발 칼날진 그곳”에 서서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아래의 인용시에서 보듯, 그것을 그는 시인 자신의 역사인식을 동지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천명을 통해 확인해주고 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낫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잔는 그따에도
오히려 꾀춘 남아게 되어안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업는 날이며

북쪽 쏜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히 꽃맹아리가 움작어려
제비떼 까마케 나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춤내 저버리지못할 약속이며¹³⁾

(2) 운동주

한중일 3국을 관통하는 운동주의 이향과 비극적 삶의 역사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917년 북간도 명동촌(吉林省 和龍縣 明東村)에서 태어나 명동소학교, 용정(龍井) 은진중학교를 거쳐 1938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난다. 이후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릿교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지만, 1943년 7월 귀향을 앞두고 사상범으로 구속되어 규슈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된 후, 옥사하였다.¹⁴⁾ 그가 쓴 작품들은 해방 후 동생 윤일주(尹一柱)와 지우(知友) 정병욱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正音社, 1948)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유고시집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다.

12) 그의 조부인 이중직(李仲直)은 보문의숙(寶文義塾)을 세워 교육에 힘썼으며, 외조부인 범산(凡山) 허형(許衡)의 집안은 일가가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에 앞장선 집안이다.(조창환, 『이육사』, 건국대출판부, 1998, 22~24면 참조)

13) 이육사, <꽃> (『자유신문』, 1945.12.17.) 1,2면. 발표는 해방후 되었지만, 실제 창작은 의열단 동지 윤세주(尹世主)가 1942년 조선의용대 하북지대 호가장 전투에서 전사한 소식을 듣고 1943년 북경으로 가던 즈음에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14) 그러나 또한 수감중 생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생체실험을 위해 중국 하얼빈(哈爾濱)에 설치, 운영한 소위 ‘731부대’(공식 명칭: 大日本帝國陸軍 關東軍 防疫給水部 本部)에서 실험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역시 밝혀진 바, 다만 그의 유해는 고향 용정으로 돌아와 안치되었고 그의 생가와 함께 역사를 통해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시인 운동주의 행로는 한반도와 중국대륙 간을 끊임없이 왕복한 이육사의 적극적인 행로에 비해 [북간도-평양-용정-경성-도쿄-교토-후쿠오카-(하얼빈)]의 이동경로가 암시하듯 고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지는 일종의 디아스포라적인 운명의 행로를 보여준다. 운동주의 시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내포한 휴머니즘적 서정을 본질로 하는 정신적 배경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15)

이 시는 1938년 경성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작품으로, 고향과 가족들이 밤하늘의 별만큼 멀리 떨어져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는 곧 공간적 거리감과 고독한 자아성찰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그만큼 그리움의 대상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행위를 통해 그 기억을 현재화하여 소환함으로써 결핍된 공간을 대체하며 자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면공간을 창출해낸다.

이 내면공간은 운동주의 시에 고유한 인간애의 정서를 실존적이며 비판적 태도를 통해 의지적인 현실인식으로 고양시키는 중요한 자질이 되는 바, 그의 시에서 '그리움'이나 '비애'의 정서는 단순한 낭만성의 표출에 그치지 않고 고결한 정신주의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한 줄 시를 적어 볼까. //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
대학 노-트를 끼고/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
나는 무얼 바라/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 16)

태평양전쟁이 한창인 시기 식민국인 일본에 유학하여 천대받는 시적 주체는 어느 비오는 날 밤 하숙집 2층 다다미방 창가에서 비애의 자기성찰을 피력한다. 이미 탈향에 과정에서 극대화된 상실감은 시인에게 반성적 성찰의 공간을 만들어주었으며, 이를 통해 '어둠'의 공간에 '등불'과 '시대처럼 올 아침'의 미래 공간을 창출해내고 있는 이 시적 순간에 시적 주체는 '최후의 나'이자 동시에 '최초의 악수'를 통해 그러한 자신을 극복하고 회복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 고향상실과 회복의 상상력

15) <별 헤는 밤> 부분.

16) <쉽게 쓰여진 시> 부분.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현대시사를 바라보는 것은 시텍스트를 시적 주체의 현실에 대한 인식적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수용하는 데 일정한 작용을 함으로써, 문학사의 지적 이해와 작품에 대한 비평적 해석을 상호관련성 속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곧 텍스트를 수용 주체의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 조희의 대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현실적 삶의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가치 해석을 창출해내도록 유도한다.

일제강점의 초기인 1920년대 <독립신문>을 근거로 이광수, 주요한 등 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상해의 활동은 다분히 계몽적 성격을 띤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주요한의 민중시론은 민족 고유의 정서를 강조한 점에서 민족주의적 지향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이 지속되면서 이미 1930년 이후 일제의 군국주의 전략이 강화되고 토지수탈과 노동력 착취가 확대되었고, 만주나 간도 지역으로의 이주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처한 바, 백석, 이용악과 같은 이 시기 시인들은 이미 탈향과 유랑의 삶과 그 역사성을 언어화하게 됨으로써 단순한 이념적 지향으로서의 시문학이 아니라, 역사적 삶에 토대한 현실주의적 형상의 시학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객관적 관찰과 제시의 형상성이며, 동시에 타자(他者)의 인식과 타지(他地)의 철저한 개인적 고독 속에 찾아낸 공동체적 삶에 대한 재인식이라 할 수 있다.

1940년대 태평양전쟁을 전후한 시기 이육사와 윤동주의 시는 끊임없는 월경과 탈향의 정점을 시인 스스로 보여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의 행로는, 작품 속에 시적 주체의 역사적 존재 성찰을 동반하면서 실존적 결단과 의지의 모습으로 그 의미가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디아스포라'의 의미로 한정시킬 수 없다. 이것은 일제강점으로부터 전개된 한국현대시의 역사가 민족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인식적 공간을 확보하는 정점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며, 아울러 이를 통해 시문학이 창출해낼 수 있는 삶의 가치화작업을 역사적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보여준 때문이다.

참고문헌

(각주로 대신함)